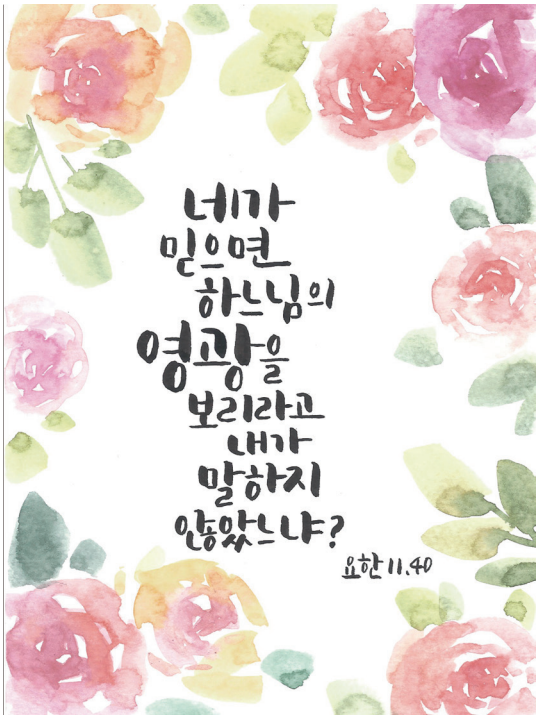
Catholic
평화주보
제1116호
2020년 3월 29일(가해)

사순 제5주일



캘리 | **이 아미카** 그림 | **안 오틸리아**

입당송 시편 43(42),1-2 참조

하느님, 제 권리를 찾아 주소서. 불충한 백성에게 맞서 제 소송을 이끌어 주소서. 거짓되고 불의한 자에게서 저를 구해 주소서.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의 힘이시옵니다.

제1독서 에제 37,12ㄹ-14

화답송 시편 130(129),1-2.3-4.5와 6ㄴㄷ-7ㄱ.7ㄴㄷ-8(◎ 7ㄴㄷ)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제2독서 로마 8,8-11

복음환호송 요한 11,25.26 참조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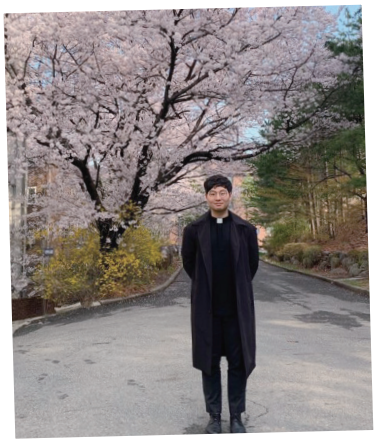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

복음 요한 11,1-45 <또는 11,3-7.17.20-27.33ㄴ-45>

영성체송 요한 11,26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필리 4,4)



2020년 2월 서품, 새 사제 최석수 요셉

서울대교구 한강성당 보좌신부로 발령받으신 최석수 요셉 새 신부님의 포부와 꿈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꿈꿔온 사제상이 바로 주님과 늘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제가 사제로 살아가는 것이 기쁘지 않다면, 저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불행이 전해질 것입니다.
저의 기쁨을 통해 제가 속한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기쁨과 사랑이 넘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4면에서 만나요

작지만 소중한 기회의 기적들

김동숙 마리아
서울대교구 청년연합회 부회장

오늘 복음에서 마르타와 마리아는 오빠 라자로가 죽고 난 뒤 예수님이 오시자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빠인 라자로를 죽게 내버려 두었다고 예수님을 원망하게 되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라자로를 너무도 사랑하셨기에 눈물을 흘리시며 그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 마르타와 마리아의 모습에서 소중한 사람을 원망하려 했던 어릴 적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 앞에 나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었고, 친구들과 어울려 춤과 노래도 연습해서 장기자랑에 나가곤 했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진로를 정해야 할 때 '무엇을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던 중 '방송이나 무대 위에서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제가 예체능 계열로 진로를 정하는 것에 대해 아주 부정적이셨고 그저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를 바라셨지요. 저는 나름(?) 말 잘 듣는 막내딸이었기에 당시 원하는 진로에 대해 반대하시던 엄마와 담임선생님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용기를 포기한 채 일반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연극이나 연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했지만 게으른 성격 탓에 굳이 찾아서 배우거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대교구 꾸르실료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청년들이 참여할 기회가 생겼고, 저는 성극 파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준비과정 안에서 처음 해보는 전문적인 연습과 발성도 쉽지 않았지만, 호흡도 엉망이었던 터라 '과연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기 전공자 청년들에게 배운 것을 열심히 연습하여 큰 실수 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성극 무대가 끝나고 응원의 박수를 받으며 무대를 내려가던 그 순간은 짜릿하고도 감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늘 해왔던 성가대를 지원했더라면 평생 연기의 맛도 보지 못한 채, 누군가의 무대를 볼 때마다 '그래. 내가 저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은 엄마와 선생님의 반대 때문이었어…'라고 생각하며 후회만 하고 지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어릴 적 꿈을 기억해 주신 주님의 은총 덕분에 생각지도 못했던 무대에 설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라자로를 살리신 주님의 기적은 너무 크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또는 너무 일상적이라 모르고 지나가는 기적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미사 중단이라는 힘든 시간 안에 사순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는 기적을 누리고 부활의 큰 기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청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요한 11,4)

함께 들어요

주님의 부르심에 "네!"라고 응답하고, 새 사제가 된 신부님들.
설레는 마음을 안고 2월 18일 첫 본당으로 발령을 받아 가셨는데요.

새 사제를 위한 환영식도 본당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이문동 성당 베네딕도 청년성가대에서 새 신부님을 위해 준비한
아름다운 곡 '새 사제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들어보아요.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확인하세요.

성경을 살다 간 사제, 이태석

이태석 신부님 선종 10주기를 맞아 영화 한 편이 개봉되었습니다. 제목은 <울지마 톤즈 2: 슈크란 바바>인데요, '슈크란 바바'는 수단에서 '하느님 감사합니다'라는 뜻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내전의 아픔 속에서도, 너무나도 당연한 가난 속에서도 이태석 신부님은 작은 것에 감사하며 남수단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사실 이태석 신부님을 조명한 영화와 다큐멘터리는 지금까지 다수 제작되었고, 천주교 신자라면 이태석 신부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할 정도로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에서는 신부님의 삶 자체보다는, 성경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태석 신부님의 모습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1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0 참조)

우리는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 '식후 30분'이라는 안내를 받곤 합니다. 하지만 가난이 일상인 남수단 사람들은 '끼니'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해가 동쪽에 떴을 때 드시라'는 방식으로 안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신부님은 대중교통이 없어 이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 가능한 많은 곳에 진료를 다니시면서 환자 치료를 위해 힘쓰셨습니다. 이처럼 이태석 신부님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자신의 삶을 헌신하셨습니다.

2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마르 12,43)

영화에는 한센인과 함께하는 신부님의 모습 역시 다수 조명되었는데요, 발가락이 문드러져 없어진 한센인들의 발을 하나하나 직접 그림으로 그리고, 그 발에 맞는 신발을 제작하여 선물하는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후 한 한센인이 감사의 표시로 '호박 한 개'를 신부님께 드리는 모습, 그리고 이를 기쁘게 받으시는 모습에서, 가진 것이 없더라도 작은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 호박은 가난한 과부의 돈과 같이 더욱 빛나 보였습니다.

3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루카 23,28)

많은 사람들이 이태석 신부님을 다룬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는 지점은 각자가 다르겠지만, 대부분 신부님의 고귀한 삶과 안타까운 죽음에 비통해합니다. 하지만 이태석 신부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눈물보다는, 힘없고 고통받는 주변의 이웃들을 향한 눈물과 그들을 위한 희생을 강조하시는 듯합니다. 이태석 신부님이 주님 곁으로 가신 지 벌써 10년. 우리는 과연 일상에서 자그마한 희생이라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집부 송슬기 미카엘]

안녕하세요. 청년주보 신.인.단(신부님 인터뷰단)입니다. 저희 신.인.단은 청년들과 긴밀히 함께하는 신부님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각자의 소명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신부님들을 소개합니다.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모습처럼, 저도 하느님과 잠시 떨어져 있는 청소년들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해줄 수 있는 사랑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제가 되고 싶습니다."
2020년 2월 서품을 받으신 새 신부님, 최석수 요셉 신부님(한강성당)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신.인.단 사제의 길은 언제부터 꿈꾸게 되셨나요?

학생 시절 꽤나 긴 시간 냉담을 했지만, 고3 때 지칠대로 지친 저는 성당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성당에 앉아 조용히 주님께 기도를 드리며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제가 느낀 주님의 첫 번째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6년 동안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두 번째 부르심이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이웃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 어떤 길일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사도 20,35)"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으시며 행복해하는 신부님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한 신부님들의 모습을 통해 저 또한 주님의 작은 도구로써 쓰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의 부르심 끝에 저는 사제의 길을 꿈꾸고 걷게 되었습니다.

신.인.단 지난 시절 신부님의 약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모든 사람에게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것은 저의 욕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랑받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면,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주위 사람들을 더 사랑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인.단 가장 즐거워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성가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기타를 조금씩 연습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기타 연주는 아니지만, 기타 소리에 맞춰 즐겁고 신나게 성가를 부르는 신자들의 모습은 저에게 큰 행복을 줍니다. 모두가 마음을 모아 성가를 부르는 그 시간 안에 늘 주님께서 함께해주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신.인.단 새 신부님으로서 어떤 부분에 가장 집중하여 사목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청소년들을 위한 사목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꽤나 오랫동안 냉담을 하며 하느님을 잊고 살았던 그 시절 저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청소년기가 정말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본당으로 찾아오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손과 마음을 내밀어주고 싶습니다.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모습처럼, 저도 하느님과 잠시 떨어져 있는 청소년들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해줄 수 있는 사랑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제가 되고 싶습니다.

2020년 청년 전례학교 초급 2차 연기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에서 진행하는
청년 전례학교 초급 2차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5월 23일~24일로 연기되어
5월 6일(수)에 접수됨을 알려드립니다.

263차 선택 주말 접수

일정 6월 12일~14일 (2박3일)
장소 한남동 꼰벤뚜알 수도원
금액 140,000원
대상 20세~35세(2001~1986년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접수 4월 1일(수) 14시~ (선착순 마감)
청년부 홈페이지(www.2030.or.kr)로 신청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학교사목부 직원 모집

분야 연구직원(계약직, 2년 후 정규직 전환 가능)
대상 견진 성사 받은 대졸자, 주일학교 교사 경력자 우대
접수 이메일(kycsca@catholic.or.kr) 4월 3일(금)까지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성직자 추천서(www.kycs.or.kr에 게시된 양식), 교적 사본
참조 www.kycs.or.kr 문의 : 02-553-7320~2 (일, 월 휴무)

발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편집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주보편집부/ 전화 : 02) 762-5071, 2/ 이메일 : mail@2030.or.kr/ 홈페이지 : www.2030.or.kr/ 주소 :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2길 49 청년문화공간 [JU] 동교동/ 인쇄 : 가톨릭출판사